

누더기 된 호랑이 마운드 '긴급 수혈'

이민우 1이닝 2피홈런 등 6실점 강판... 불펜 운영 '빨간불'

한승혁 재활 끝 합류...곽정철·임기영·심동섭 '호시탐탐'



비용의 한 방에 일격을 당한 '호랑이 군단'이 전력 재편에 나섰다.

KIA 타이거즈는 4일 SK 와이번스와의 2차전을 앞두고 엔트리 변동에 나섰다. 재활을 끝낸 투수 한승혁이 새로 합류했고, 외야수 유재신이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8일 선발 이민우의 등락을 위해 포수 한승택을 말소한 이후 첫 엔트리 변동이다.

전날 패배가 발단이 됐다. KIA는 SK와의 시즌 첫 만남이었던 3월 3-13 대패를 당했다. 이날 KIA 마운드는 1회 로맥의 스리런을 시작으로 무려 6개의 홈런을 맞으면서 휘청거렸다.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 이민우가 2회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물러나는 등 1이닝 5피안타(2피홈런) 3사사구 6

실점으로 부진했다.

선발이 조기 강판되면서 불펜이 일찍 움직였다. 박정수와 문경찬으로 남은 이닝을 마무리하며 전력 손실은 최소화했지만, 각각 투구수가 41개와 80개에 이르면서 불펜 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주중 SK에 이어 주말 안방에서 박병호를 앞세운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KIA는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마운드 인원을 충원했다.

첫 주자는 한승혁이 됐다. 지난 시즌 시범경기의 '스타'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한승혁은 계속된 부진으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며 관망자로 팀 우승을 지켜보아야 했었다.

올 시즌에는 출발부터 수월하지 못했다. 허벅지 통증으로 스프링캠프를 완주하지 못했던 한승혁은 재활을 거쳐 지난 30일이 돼서야 첫 실전피칭에 나섰다.

한승혁은 이날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1.2



한승혁

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하며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3일 경산 불꽃에서 열린 삼성과의 퓨처스 리그 개막전에서 정식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한승혁은 이날 6개의 공으로 1이닝을 책임지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연습경기에서 작구 최고 구속 156km를 기록하는 등 특유의 강속구는 여전했다. 리그를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인 한승혁은

커브로 속도 조절에도 나섰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도 커브를 연마했지만 실전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었다. 새 시즌에 대비해 커브를 시험한 한승혁은 '느림'으로 자신이 장점인 강속구의 위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승혁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올 시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타자와 과감하게 붙고, 마운드에서는 즐겁게 경기를 하겠다"며 "지난 시즌 커브를 시험해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새 구종을 잘 활용하겠다. 스피드보다 로케이션에 신경 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1군 합류 소감을 밝혔다.

한승혁을 시작으로 복귀 무대를 노리는 투수들의 결속도 빨라질 전망이다.

열행 장재로 지난 시즌 자취를 감췄던 곽정철이 3일 퓨처스리그 개막전에서 1이닝 1피안타 3탈삼진을 기록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고, 같은 날 임기영도 호원대와의 연습경기에서 31개의 공을 던지며 재활조 탈출을 알렸다. 5일에는 좌완 심동섭이 3군 연습경기에서 첫 실전 피칭을 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투수들의 자리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학범 U-23 감독 해외파 점검차 출국

썩 게임 앞두고 손흥민·황희찬 등 체크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준비하는 김학범(58)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차출 대상 후보인 손흥민(26·토트넘)과 황희찬(22·잘츠부르크) 등을 점검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김 감독은 앞서 소속 구단인 토트넘이 협조해준다면 손흥민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뽑을 의사가 있음을 내비쳐왔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규정한 국가대표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구단이 허락해야만 아시안게임에 나설 수 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8월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 초반이라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한국 대표팀에 보낼지 미지수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김학범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전한

뒤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 아시안게임에 뭘 의사가 있는지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은 만 28세 이전에 군 복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해외 무대에서 뭘 수 없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면 4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을 해결할 수 있다.

올림픽 동메달까지 병역 특례를 받지만 손흥민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전에 군 복무를 해결해야 한다.

김 감독은 다른 와일드카드 후보인 공격수 황희찬의 경기력도 점검한다. 또 작년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뛰었던 이승우(이탈리아 베로나), 백승호(스페인 지로나), 이진현(오스트리아 빈)과 서영재(독일 함부르크), 김정민(오스트리아 리퍼링) 등의 경기력도 불 점검한다.

김 감독은 유럽파 선수 점검을 마치고 오는 24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괴물' 오타니, 홈런 등 3안타

일본이 자랑하는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4·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포함해 3안타 타격을 펼쳤다.

오타니는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에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 활약을 펼쳤다.

오타니는 첫 타석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쳐냈다.

3-2로 앞선 1회말 2사 2·3루에서 오타니는 클리블랜드 우완 조시 톨린의 6구째 시속 119km 커브를 견어올려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3점포를 터뜨렸다.

정규리그가 시작하자 시범경기에서 고전했던 오타니는 온데간데 없었다.

투타 겸업을 시도하는 오타니는 지난 달 30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타자로 바리크 데뷔전을 치러 5타수 1안타를 쳤다. 투수로는 2일 오�클랜드전에 선

발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3실점 6탈삼진으로 데뷔전 승리를 쟁겼다. 오타니는 타자로 2번째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신고한 데 이어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까지 같은 날 작성했다.

오타니는 8-2로 앞선 3회말에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오타니의 타구는 클리블랜드 2루수 제이슨 킵니스의 글러브를 맞고 우익수 앞으로 향하며 내야안타로 기록됐다. 5회말 루킹 삼진으로 물러난 오타니는 8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깨끗한 중전 안타를 쳐내고 이날 하루에만 3안타를 수확했다.

오타니의 타율은 0.200에서 0.444(9타수 4안타)로 경중 뛰었다.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바리크 첫 홈런을 포함해 홈런 5방으로 13-2 대승을 거뒀다.

한편 그는 일본에서 5년 동안 투수로 42승 15패 7세이브 평균자책점 2.52, 타자로 타율 0.286, 48홈런, 166타점을 각각 올렸다.

/연합뉴스

환상의 오버헤드킥 호날두 "내 인생서 다시 못 볼 장면"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유벤투스 팬도 기립박수

전 세계 축구계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환상적인 바이시클킥으로 들끓고 있다.

호날두는 4일 이탈리아 토리노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유벤투스와 원정 경기 1-0으로 앞선 후반 19분 다니엘 카르발hal의 오른쪽 크로스를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해 상대 골망을 갈랐다.

슈팅장면은 마치 비디오 게임을 연상케 할 만큼 멋졌다.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호날두가 무시무시한 기술로 슈팅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마르카는 "호날두는 2.38m 높이의 공을 쳤다. 호날두가 뭘 순수한 높이는 1.41m에 달한다"며 "골대 높이가 2.44m인 점을 고려하면 호날두가 얼마나 민기 힘들 정도의 슈팅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호날두의 골 장면엔 관해 전 세계 스포츠인들도 박수를 보냈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인 마이클 오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호날두의 두 번째 골은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크스 래시퍼드는 "호날두가 농담 같은 일을 해냈다"고 말했고, 이탈리아 AC밀란의 영구결번 선수인 프란코 바레시는 "실제 상황이 아닐 거야"라고 밝혔다.

미국 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호날두의 슈팅장면 사진을 게재한 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호날두 역시 경기 후 UEFA와 인터뷰에서 "나도 뭐라 말하기 힘들다. 굉장했다"라며 자신의 골 장면엔 관해 말했다.

이어 "기립박수를 보내 준 유벤투스 현지 팬들께 감사드린다. 내 선수 인생에서 다시는 못 볼 장면"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와의 8강 1차전에서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